**독도에 관하여**

박재련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가장 끝에 위치한 섬으로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다. 독도는 동도, 서도와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336호로서 60여종의 식물, 130여종의 곤충, 160여종의 조류 및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며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다.

독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문헌(세종실록지리지,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등)을 보면 옛날부터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기록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기록에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자료들은 많이 존재한다. 일본 실학파 학자인 시헤이가 1780년경에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이라는 책을 간행하면서 그린 부록 지도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와 ‘대일본지도(大日本地圖)’ 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일본의 색깔이 아니라 조선의 색깔로 표시하여 조선영토임을 명백하게 표시했다. 또한 그 옆에 다시 ’朝鮮ノ, 持ニ(조선의 것으로)’라고 문자를 적어 넣어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실하게 표시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전략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해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왜곡이 심해짐에 따라 우리 정부도 침묵의 대응 대신 단호한 대처를 하고 있다. 독도 홍보 영상을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총 12개의 언어로 제작 및 배포하고 있으며 독도 관련 어플리케이션, 독도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명백한 증거에 비해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근거는 상당히 부실해보인다. 일본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용을 위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해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해야 하여,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필수로 교육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이외 다른 나라에도 홍보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가 부실함을 알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